

추석 기다림 있어 설레는 고향

대추가 붉게 익어가는 추석 무렵이면 팔팔레 울음소리에도 가슴 한 편이 무너집니다. 세상 앞 만 보고 모질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부모님과 고향 생각이 새록 솟아나는 때도 종종일 무렵이지요. 이 맘 때면 바람이 솔दान, 열은 구름이 머물러 있는 고향 하늘은 비취색으로 변해갑니다. 그 하늘에는 솜사탕 처럼 개담없이 부풀어오르던 등심이 머물고 있지요. 어머니가 자식들을 향한 마음을 함지박으로 퍼올리고, 힘든 삶을 비벼 빨고 날았던 정겨운 우물도 있지요. 아버지가서 한 잔 술에 설음을 털어내고 터벅터벅 걸어 오시던 마을 길도 여전히입니다.

그 정겹고 너른 고향을 지키고 계신 부모님은 또 어떤가요. 추석절, 편은 자식과의 해우를 위해서 부모님은 한 해 농사를 지으셨을 겁니다. 마당에 날아놓은 고추가 빨리 마르지 않는다고 날씨 탓을 하고, 산에서 뜯어놓은 고사리를 다시 볶아 내놓는 것도 이 때 쯤입니다.

추석은 부모님들이 맘을 홀렸던 눈발에서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이모작인 자식들을 마음으로 거둬들이는 날입니다. 찰나도, 툇나도 당신들의 품안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는 애잔한 자식들을 한 순간 보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한 해를 넉넉하게 견디실 겁니다.

그래서 이 즈음 자식들이 넘어올 통구 밖에 눈길을 두고 있는 부모님의 기다림은 내내 행복하기만 할 겁니다.

/윤형기기자 pentooq@kwangju.co.kr

노 젓는 사슴 대신 줄을 잡고 건너는 줄배에도 고향을 찾는 오롯한 사람은 마찬가지. 삼진강 변 마을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의 귀성풍경이 정겹다.
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

한가위 특집 지면 안내

10면	귀성·귀경 교통정보	14·15면	TV가이드
11면	민속문화행사 풍성	16면	연휴 가볼만한 곳
12면	진남 특산물 율가이드	17면	책·영화로 본 가족
13면	추석 극장가	18면	건강한 추석